

중국 대학 예비 무용 교사의 교수 역량 탐구

- 직업 정체성, 회복 탄력성 및 반성적 사고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

왕아기* · 박수영**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III. 연구 결과
- IV. 논의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론

중국의 무용교사 양성 교육에 대한 탐구와 새로운 교습법의 실천은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그 결과, 중국의 화려한 무용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성공적으로 전승할 수 있었다. 고대 교육 체계 중 하나인 '예악(禮樂)제도'에서도 중국의 무용 교습법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일례로, 기원전 1046년 경부터 기원전 256년까지 존속된 주나라 시대에도 이미 체계적인 무용교육 체계가 존재했으며, 이 제도는 중국 전통교육 속에서 중시된 '육예(六藝)' 중의 하나인 '예악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李娟, 2014). 중국은 우수한 무용가들을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하여 1951년에 '무연반(舞研班)'과 '무운반(舞運班)'을 신설하였다. 무운반 과정은 1980년, 베이징무용학원이 대학교로 승격된 후 '중국 고전무 교육전공', '중국 민족민간무 교육전공'을 잇달아 개설하며(Jin & Smith, 2022) 수많은 무용 교육 인재를 배출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부터 중국 교육부는 『의무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표준, 义务教育课程方案和课程标准』(2022) 과 『대학원 학과 및 전공 목록, 研究生教育专业目录』(2022) 등의 정책을 발표하며 무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무용 과목을 의무교육 단계의 정규 교과목으로 정식 채택함에 따라 중국 무용 교육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기초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원에서도 무용이 1급 학과로 독립 지정되었고, 이에 기세에 따라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에 걸친 중국 무용교육의 체계화가 본격적인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교육 개혁 및 정책 추진의 흐름 속에서 무용 교사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발전의 기회를

* 주저자,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ballet0229@cnu.ac.kr

부여받는 동시에, 교수자로서 수행해야 할 새로운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에서 무용 교육이 점차 확대되면서 무용 교사들은 이전보다 증가한 수업 시수는 물론, 교육적 책임까지 요구받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자의 높은 교습력과 더불어 무용 인재 양성 능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 양성 중이거나 직업 초기에 있는 예비 무용교사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겪고 있다. 김수산나와 안기호(2023)는 무용 교수의 감성 리더십이 학생들의 전공몰입과 학업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나, 2025년 현재 중국에서 무용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용 교육이 현재까지도 특정한 무용 동작과 기술을 익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Jin & Snook, 2022). 그 외로는 종합적인 교수 역량 그리고 예비 교사의 개인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 중 하나이다. 이우정(2024) 또한 무용 전공 중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학교 생활만족도 및 무용정서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무용 교사가 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로 인해, 졸업 후 바로 교육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현장 교수 수행에 대한 실질적 능력이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다.

“뛰어난 무용 교사의 역량은 뛰어난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교수-학습 상황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지식, 무용 기술, 교수 능력, 교육적 태도 및 교사로서 추구하는 가치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우징, 2021, P. 3). 강경모(2012)에 따르면, 무용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칭찬이나 자신감을 부여하면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가지게 되고, 이에 학생들은 교수자에게 배운 동작과 움직임을 자신만의 표현법으로 응용하고 자기주도적인 표현을 창작해낼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무용교사로 성장하고 질 높은 무용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수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장려하는 요인 중 하나는 ‘직업 정체성’이다. 직업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인지적 기반으로, 이는 직업인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행동을 유도하는 사고의 틀 또는 인지적 구조를 의미한다. 둘째는 정서적 기반으로, 이는 직업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심에 따라 이상적 자아상과의 일치치를 통해 동기를 부여받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의미한다(Fugate, Kinicki, & Ashforth, 2004; Ashforth, 2001).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무용 교사의 직업 정체성이 충족된 상태란, ‘무용 교사’라는 직업을 지닌 개인이 무용 교사로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에 전념하는 동시에, 이상적 자아상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Fugate et al., 2004).

예비 교사의 직업 정체성은 교사로서 역량을 가늠하는 주요 심리 기제이다. 이에, 예비 교사의 직업 정체성 척도는 잠재력 있는 예비 교사의 양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장효박, 2023; 邓婷婷, 2022).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본인 담당의 과목을 가르치는 것에만 의미를 두지 않는다. 교사는 아직 사회로 나가기에는 미숙한 학생들을 사회 변화에 맞춰 사회로 진출할 준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이행한다. 이에, 일관된 열의를 가지고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예비 무용 교사의 직업 정체성은 그들의 개인적 성장과 교사로서의 역량 향상에 도모하는 핵심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다른 요인은 ‘회복 탄력성’이다.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란, ‘정신적 저항력’을 의미한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성장의 계기이자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발전하는 심리적 근력을 의미한다(Masten, 2001; Werner & Smith, 2001; 张晔; 2008). 또한, 회복 탄력성은 삶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좌절이나 어려움을 겪은 후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곤경에서 벗어나 환경에 다시 적응케 돕는다(Lei & Wang, 2017; Masten, 2001).

높은 회복 탄력성은 교사의 종합적 역량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ai & Wang, 2023; Lei, 2022).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예비 무용 교사는 교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 효과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교수 상황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업 정체성 중 정서적 기반을 형성해 나가며 성취감을 느끼고, 이러한 긍정적 경험은 궁극적으로 예비 무용 교사의 종합적 역량을 강화한다.

교사들의 또 다른 성장 요인으로는 ‘반성적 사고’가 있다. 1993년, 존 듀이(John Dewey)는 이를 “어떤 신념이나 지식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그 원인이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Dewey, 1933, p. 10)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교사 교육이 보편적인 교육 이론이나 원리 전달에 그치지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의 반성적 사고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주한, 2012; 이진향, 2002). Smith(1995) 또한 예비 교사들에게 반성적 사고 능력(reflective thinking skills)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교육학 분야의 연구들에서도 반성적 사고는 교직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교직 수행 과정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량으로 작용함이 드러났다(Mohamed, Rashid, & Alqaryouti, 2022; Adadan & Oner, 2018). 위와 같은 선행 연구에 따라, 반성적 사고는 교사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간주된다.

최근 예비교사의 교수 역량에 대한 연구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는 교사 역량 발달을 단선적 기술 습득이 아닌 다차원적 구조로 이해하려는 교육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함의한다. 국내외 선행연구들(박소영, 장나영, 2024; 유신복, 송영명, 2020; Mohamed et al., 2022; Adadan & Oner, 2018) 역시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기술이나 인지·전략적 접근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심리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허나, 선행연구는 주로 직업 교육이나 심리학 등 학문적 분야에만 집중했으며, 연구 대상 또한 한국인 교사에 한정되었다. 이에 중국인 예비 무용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최근 중국에서는 무용이 의무교육 단계에서 독립 교과목으로 지정되었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원 과정에서도 무용이 독립된 1급 학과로 승격되었다. 이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무용 교사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예비 무용 교사 양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업적 성장과 종합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의 예비 무용교사들을 중심으로 주요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현재 무용 교사들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직무 정체성의 혼란, 수업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의 어려움, 교수 경험에 대한 성찰 부족 등 다양한 심리적·인지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孙苏敏, 2017; 王凤娇, 2024).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은 예비 교사의 교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전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질적으로 우수한 무용 교육은 교사 개인이 인지적 동기, 정서적 안정성, 교육적 성찰 역량을 갖추고 해당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예비 무용 교사의 교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 ① 교직에 대한 인지적 동기를 반영하는 직업 정체성,
- ② 수업 중 마주하는 스트레스와 이를 조절하는 심리적 자원인 회복탄력성,
- ③ 교육 경험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반성적 사고.

이 세 요인은 각각 '인지-심리-반성'의 축을 형성하며 예비 교사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는 통합적 요소로, 상호 유기적인 작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직업정체성은 예비 무용 교사의 교수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 H2. 회복탄력성은 예비 무용 교사의 교수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 H3. 반성적 사고 능력은 예비 무용 교사의 교수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 H4. 직업정체성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 H5. 직업정체성은 반성적 사고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 H6. 회복탄력성은 반성적 사고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 H7. 회복탄력성은 직업정체성과 예비 무용 교사의 교수 역량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
- H8. 반성적 사고 능력은 회복탄력성과 예비 무용 교사의 교수 역량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
- H9. 반성적 사고 능력은 직업정체성과 예비 무용 교사의 교수 역량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설은 연구 모형에서 설정된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와 인과 경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접 효과 → 변수 간 인과관계 → 매개 효과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었다.

이와 같은 배열은 변수 간 영향 경로에 대한 논리적 흐름을 구조화하고, 연구 모형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현재 무용 교사의 양성은 주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교사 양성 교육은 전반적인 기초교육사업 교수진의 전체적인 수준 및 능력 향상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다(劉蕾, 2019). 이에 중국 사범대학 무용교육 전공 재학생(예비 무용교사) 559명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3월 22일까지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조사 대상은 남성 22.54%, 여성 77.46%였으며, 대상 학년은 각각 학부 3학년 37.92%, 학부 4학년 40.25%, 석사 1학년

10.02%, 석사 2학년 11.81%를 차지했다. 무용 학습 이력의 측면에서는 3년 이상 5년 미만 71.74%, 5년 이상 7년 미만 15.21%, 7년 이상 13.06%로 었다. 무용 교수 경력 측면에서는 교수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54.74%, 교수 경험이 1년 미만인 응답자 45.26%였다. 연구 대상이 대학 무용 교육 전공의 예비 교사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이는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설정한 연구 목표와 일치한다. 전체 응답자 중, 무용 교수 경력 분류에서 교수 경험이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26%였다. 이들 중 일부는 석사 재학생으로, 학부생 때 교육 실습을 통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무용 수업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일부는 학부 재학생으로, 무용 학원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파트타임 보조 강사 활동을 통해 교수 경험을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항목에 교수 대상이나 기관 유형에 대한 세부 구분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예비 교사의 교수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26	22.54%
	여	433	77.46%
학년	석사 1학년	56	10.02%
	석사 2학년	66	11.81%
	학부 3학년	212	37.92%
	학부 4학년	225	40.25%
무용학습경력	3년 이상~5년 미만	401	71.74%
	5년 이상~7년 미만	85	15.21%
	1년 이상	73	13.06%
무용교수경력	없음	306	54.74%
	1년 미만	253	45.26%

2.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중국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능력 영향 요인 설문조사를 조사 도구로 활용하였다. 설문은 직업정체성 5문항, 회복탄력성 6문항, 반성적 교수능력 6문항, 예비교사의 교수능력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 직업 정체성

본 연구는 중국 대학 예비 무용교사의 직업정체성이 교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Gracia (2021) 및 유흥준 등(2014)의 교사 직업정체성 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정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나. 회복 탄력성

중국 대학 예비 무용교사의 회복 탄력성이 교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Connor & Davidson (2003)의 (CD-RISC) 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국 대학 예비 무용교사의 회복 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 반성적 사고

Kember 등(2010)이 개발한 반성적 사고 척도는 개인의 반성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반성적 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라. 교수 역량

교수 역량 측정은 Megan & Anita(2001)의 교사 교수 역량 평가 척도와 Wu(2021)의 중국 사범대학 예비 무용 교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3.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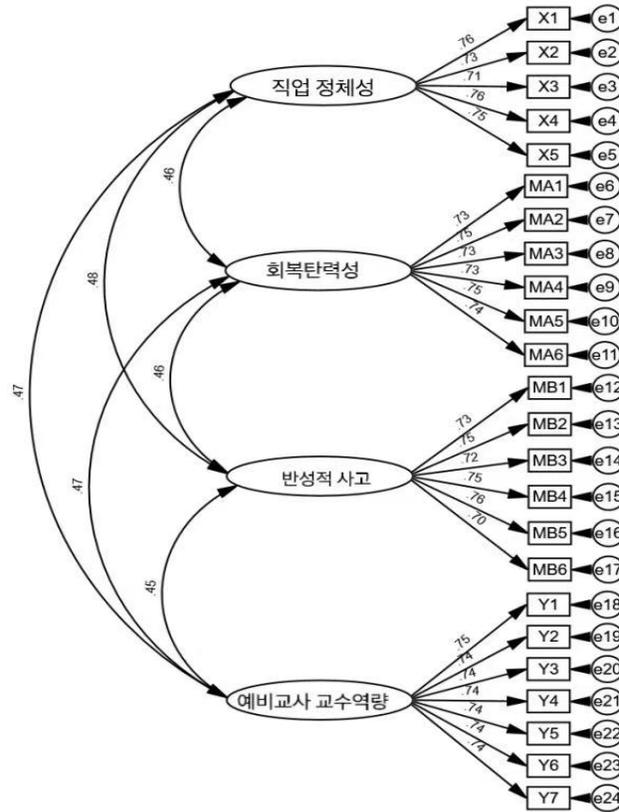
직업정체성, 회복탄력성, 반성적 사고 능력,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의 네 가지 변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직업정체성의 Cronbach의 α 값은 0.860, 회복탄력성은 0.877, 반성적 사고 능력은 0.876,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은 0.895로, 네 변인 모두 0.85 이상으로 나타나 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우수하므로,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2〉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항목	Cronbach's α 계수
직업 정체성	5	0.860
회복탄력성	6	0.877
반성적 사고	6	0.876
예비교사 교수역량	7	0.895

본 연구는 AMOS 24.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측정 도구의 요인 구조를 검증하고 각 구성 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정체성, 회복탄력성, 반성적 사고,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의 네 가지 측정 변수의 수렴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초기 측정 모델을 구성한 후 적합도 지수를 분석함으로써 척도의 구조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후 진행될 구조방정식 모델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의 기초 자료로 삼았다. 확인적 요인 분석(CFA) 모델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그림 2> 측정 모형

요인 적재 계수(Factor Loadings) 분석 결과, 각 측정 문항의 표준화 요인 적재 값(Standardized Factor Loadings)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각 측정 항목이 해당 잠재 변수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적 척도로는 직업정체성의 요인 적재값이 0.710~0.764, 회복탄력성은 0.729~0.750, 반성적 사고 능력은 0.702~0.760,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은 0.736~0.750의 범위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이 0.70 이상의 요인 적재값을 보이며, 측정 도구가 충분한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분석 결과, 직업정체성의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은 0.551, 회복탄력성은 0.544, 반성적 사고 능력은 0.542,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은 0.549로 나타났다. 모든 AVE 값이 기준치인 0.50 이상을 상회함에 따라, 각 측정 변수가 해당 구성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성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분석 결과, 직업정체성의 CR 값은 0.860, 회복탄력성은 0.878, 반성적 사고 능력은 0.877,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은 0.895로, 모두 기준치인 0.70 이상을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측정 도구가 높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측정 모델은 수렴 타당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모두 적절한 수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요인 적재 계수 및 AVE와 CR 지표 결과

경로		Estimate	AVE	C.R.
X1	<---	0.764	0.551	0.860
X2	<---	0.732		
X3	<---	0.710		
X4	<---	0.757		
X5	<---	0.748		
MA1	<---	0.733	0.544	0.878
MA2	<---	0.750		
MA3	<---	0.733		
MA4	<---	0.729		
MA5	<---	0.747		
MA6	<---	0.735		
MB1	<---	0.725	0.542	0.877
MB2	<---	0.752		
MB3	<---	0.724		
MB4	<---	0.754		
MB5	<---	0.760		
MB6	<---	0.702		
Y1	<---	0.750	0.549	0.895
Y2	<---	0.740		
Y3	<---	0.742		
Y4	<---	0.740		
Y5	<---	0.736		
Y6	<---	0.743		
Y7	<---	0.738		

4. 조사 절차

본 연구는 '문권성(問卷星)'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모든 설문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자들에게 배포되었으며, 응답자들이 직접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예상 소요 시간, 설문 응답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성실한 응답을 사전에 걸러내는 절차를 거쳤다. 구체적으로 응답 시간이 90초 미만인 설문지, 문항 간 응답의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 동일

응답자가 중복적으로 제출한 설문을 무효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559부의 유효한 설문지가 연구 분석에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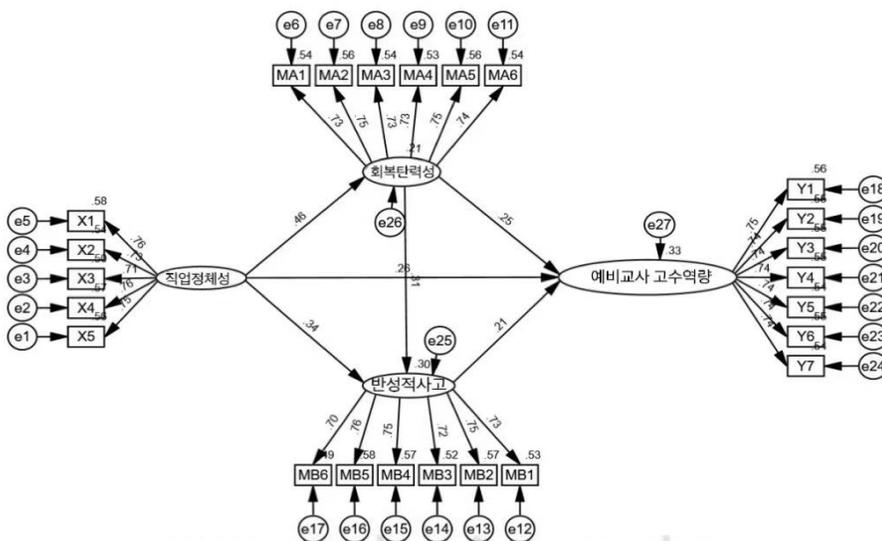
5. 자료 처리

본 연구는 PASS 27 및 AMOS 24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총 559개 표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 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척도의 구조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셋째, 각 변수 간의 직접적인 관계 및 잠재적인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관련 분석을 진행하였다. 넷째,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의 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MOS 24.0를 이용하여 직업정체성, 회복탄력성, 반성적 사고 능력이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고, 이러한 변수들 간의 직접적 관계 및 잠재적인 매개 효과를 검토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은 변수 간 관계의 강도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잠재 변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검증할 수 있어 연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측정 모델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3>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모델의 적합도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적합도 지표를 통해 평가되었으며, 모든 적합 지수가 이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 이는 모델 적합도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여 모델의 적합성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연구 모형의 파라미터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모형의 파라미터

지수 명	적용 표준	검증 결과	적합가능여부
CMIN/DF	<3	1,237	적합
RMSEA	<0.10	0.021	적합
RMR	<0.05	0.041	적합
GFI	>0.9	0.958	적합
AGFI	>0.9	0.948	적합
PGFI	>0.5	0.785	적합
NFI	>0.9	0.954	적합
IFI	>0.9	0.991	적합
TLI	>0.9	0.990	적합
CFI	>0.9	0.991	적합
PNFI	>0.5	0.850	적합
PCFI	>0.5	0.883	적합

구조방정식 모델(SEM)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정체성이 예비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0.260이며, 표준화 경로 계수(Standardized Path Coefficient)는 0.260, S.E. = 0.055, C.R. = 4.907, $P < 0.001$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설 H1을 지지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직업정체성이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회복탄력성이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0.254이며, 표준화 경로 계수는 0.254, S.E. = 0.054, C.R. = 4.883, $P < 0.001$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설 H2를 지지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성적 사고 능력이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0.205이며, 표준화 경로 계수는 0.222, S.E. = 0.056, C.R. = 3.930, $P < 0.001$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설 H3을 지지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반성적 사고 능력이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정체성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0.456이며, 표준화 경로 계수는 0.456, S.E. = 0.051, C.R. = 8.883, $P < 0.001$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설 H4를 지지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직업정체성이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정체성이 반성적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0.336이며, 표준화 경로 계수는 0.322, S.E. = 0.050, C.R. = 6.374, $P < 0.001$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H5을 지지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직업정체성이 반성적 사고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회복탄력성이 반성적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0.310이며, 표준화 경로 계수는 0.297, S.E. = 0.050, C.R. = 5.964, $P < 0.001$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설 H6을 지지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반성적 사고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경로계수	표준경로계수	S.E.	C.R.	P	가설
직업 정체성	→	예비교사 교수역량	0.269	0.260	0.055	4.907	***	H1
회복 탄력성	→	예비교사 교수역량	0.263	0.254	0.054	4.883	***	H2
반성적 사고	→	예비교사 교수역량	0.222	0.205	0.056	3.930	***	H3
직업 정체성	→	회복 탄력성	0.455	0.456	0.051	8.883	***	H4
직업 정체성	→	반성적 사고	0.322	0.336	0.050	6.374	***	H5
회복 탄력성	→	반성적 사고	0.297	0.310	0.050	5.964	***	H6

주: $p < 0.05$, ** $p < 0.01$, *** $p < 0.001$

2. 매개효과 검증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의 Bootstrap을 사용하여 매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총 5,000회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설정하고, 95% 신뢰 구간을 적용하여 매개 효과의 신뢰성과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직접 효과와 총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업정체성이 교수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 또는 반성적 사고 능력과 같은 매개 변인을 통해 추가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직업 정체성→회복탄력성→예비교사 교수역량” 경로에서의 간접효과(0.12, CI:0.0720,188)와 “직업 정체성→회복탄력성→반성적 사고→예비교사 교수역량” 경로에서의 간접효과(0.03, CI:0.0330,116)와 “직업 정체성→반성적 사고→예비교사 교수역량” 경로에서의 간접효과(0.022, CI:0.0380,127)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세 가지 경로 모두에서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업정체성은 예비 무용 교사의 교수 역량을 직접적으로 향상할 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과 반성적 사고 능력을 통해 추가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그 중 회복탄력성이 주요 매개 변수로 작용하고 반성적 사고 능력이 이러한 영향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변인 간 효과검증은 〈표 6〉과 같다.

〈표 6〉 변인 간 효과검증

구분	Estimate	SE	Lower	Upper
총 효과	0.49	0.063	0.37	0.615
직접 효과	0.269	0.055	0.174	0.394
총 간접 효과	0.221	0.037	0.153	0.298
직업 정체성→회복탄력성→예비교사 교수역량	0.12	0.029	0.072	0.188
직업 정체성→회복탄력성→반성적 사고→예비교사 교수역량	0.03	0.021	0.033	0.116
직업 정체성→반성적 사고→예비교사 교수역량	0.071	0.022	0.038	0.127

본 연구는 제기된 가설들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가설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먼저, 직업 정체성, 회복탄력성, 반성적 사고 능력은 모두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직업정체성은 회복탄력성과 반성적 사고 능력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복탄력성과 반성적 사고 능력은 각각 직업정체성과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회복탄력성과 반성적 사고 능력과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설 검증 결과

번호	가설	검증 결과
H1	직업정체성은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성립
H2	회복탄력성은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성립
H3	반성적 사고 능력은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성립
H4	직업정체성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성립
H5	직업정체성은 반성적 사고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성립
H6	회복탄력성은 반성적 사고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성립
H7	회복탄력성은 직업정체성과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	성립
H8	반성적 사고 능력은 회복탄력성과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	성립
H9	반성적 사고 능력은 직업정체성과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능력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	성립

IV. 논의

본 연구는 예비 무용 교사의 직업정체성, 회복탄력성, 반성적 사고 능력, 그리고 교수 역량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중국 무용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정체성은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는 장효박(2023), 邓婷婷(2022), 宋运明·李鹏(2020), 孙苏敏(2017) 등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직업정체성과 교수 전문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업정체성이 회복탄력성과 반성적 사고 능력을 매개로 하여 교수 역량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직업정체성이 높은 예비 교사일수록 교수 실습 과정에서의 학습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는 교수 역량의 향상과 개인의 전문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교사로서의 역할 정체성과 예술 전공자로서의 자아 정체성 간의 균형 형성이 주요 과제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이중적 정체성 속에서 직업정체성은 교수 활동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중국 무용 교육의 특수한 환경에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회복탄력성 또한 예비 무용 교사의 교수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Lai & Wang(2023), Wang(2020)의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 또한, 예비 교사가 교수 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심리적 자원임을 확인했다. 교수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업정체성과 반성적 사고 능력 간의 관계에서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예비 교사일수록 실습이나 실제 수업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무용 교육과 같이 높은 신체적·정서적 몰입이 요구되는 교육 환경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수업의 질 유지와 교수자의 자아 효능감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나아가 실천적 교수 능력의 핵심 요소로 기능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반성적 사고 능력은 예비 무용 교사의 교수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강주연, 정정희(2017), 王凤娇(202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반성적 사고가 교육 실행의 질을 향상하는 핵심 인지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반성적 사고 수준이 높은 예비 교사는 수업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신속히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무용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달에 그치지 않고, 교사가 수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인식하여 이에 따라 판단, 피드백, 자기 조절을 수행하는 고차원적 인지 과정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는 교수 전략을 분석적으로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 자원이다. 현재 중국의 예비 무용 교사들은 실습 기회 부족,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 등 외적 제약이 적지 않은 실정이지만, 교수 현장 적응과 문제 해결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반성적 사고가 교육 실천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예비 무용교사의 직업정체성, 심리적 탄력성, 반성적 사고 능력 및 교수 역량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각 변인 간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중국 무용 교육 전공 대학생을 조사 대상 집단으로 선정하여 총 559개의 유효 표본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직업정체성은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회복탄력성은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반성적 사고 능력은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직업정체성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직업정체성은 반성적 사고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회복탄력성은 반성적 사고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곱째, 회복탄력성은 직업정체성과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덟째, 반성적 사고 능력은 회복탄력성과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홉째, 반성적 사고 능력은 직업정체성과 예비 무용교사의 교수 역량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의 시간적·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중국 일부 지역에 소재한 무용 관련 전공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제한된 표본이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 결과를 광범위한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교육기관, 학제별 특성을 반영한 표본 확장을 통해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교수 경험’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어, 실제 교수 대상(예: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등) 및 교수 환경(예: 공교육, 사설 기관, 개인 지도 등)의 구체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은 교수 경험의 세부적 특성과 질적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교수 경험의 세부 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구조화된 측정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교수 경험의 질적 특성과 교수 역량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Ashforth, B. E., & Fugate, M. (2001). *Role transitions in organizational life: An identity-based perspectiv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6-50.
- Dewey, J. (1933). *How we think: A restatement of the relations of reflective thinking to the educative process* (2nd revised edition). D. C. Heath.
- Werner, E. E., & Smith, R. S. (2001). *Journeys from childhood to midlife: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Cornell University Press.
- 강경모(2023). 무용수업에서의 교수유형과 무용정서표현성 및 무용성취와의 관계. *한국무용예술학회*, 35(2), 97-112.
- 강주연, 정정희(2017). 유아교사의 발달단계에 따른 자기장학 활동이 교사의 교수능력 및 반성적 사고수준에 미치는 영향.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171-171.
- 김수산나, 안귀호(2023). 교수 감성리더십이 실용무용전공 학생의 몰입 및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예술학회*, 35(2), 37-53.
- 박소영, 장나영(2024). 예비교사의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의 수준 및 유형. *교육행정학연구*, 42(4), 187-212.
- 유신복, 송영명(2020). 예비교사가 지각한 교수 및 평가 실제, 기본심리욕구, 학업참여 및 핵심역량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37(3), 389-413.
- 유홍준, 유태용, 정태인, 배성호, 조아름(2014). 직업정체성 척도개발과 직업정체성의 선행 및 결과변인들 간 관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7(4), 617-642.
- 이우정(2024). 무용전공생의 자기효능감이 무용정서표현성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예술학회*, 36(1), 57-73.
- 이주한(2012). Dewey의 반성적 사고 개념에서 본 반성적 교사의 특질. *한국초등교육*, 23(2), 17-34.
- 이진향(2002). 교사의 수업개선을 위한 반성적 사고의 의미 고찰. *한국교원교육연구*, 19(3), 169-188.
- 장효박(2023). 중국 예비교사의 교사직 자원(自願) 여부가 학습몰입, 교수효능감,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 우징(2021). 중국 사범대학 예비무용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수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실천적 교수역량 교육과정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Ashforth, B. E., & Fugate, M. (2001). Role transitions and the life span. *Role transitions in organizational life: An identity-based perspective*, 225-257.
- Connor, K. M., & Davidson, J. R.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 Fugate, M., Kinicki, A. J., & Ashforth, B. E. (2004). Employability: A psycho-social construct, its dimension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1), 14-38.
- Jin, J., & Snook, B. (2022). Comprehensively strengthening and improving aesthetic education in a new era: An examination of the dance education major at the Beijing dance academy. *International*

- Journal of Chinese Education*, 11(3), 1-13.
- Kember, D., Leung, D. Y. P., Jones, A., Loke, A. Y., McKay, J., Sinclair, K., ... Yeung, E. (2010).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Level of Reflective Thinking.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25(4), 381-395.
- Lai, H., & Wang, H. (2023). The impact of humble leadership on employee turnover intention. *Modern Marketing (First Half of the Month)*, 808(06), 142-144.
- Lei, L., & Wang, Y. (2017). Empirical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occupational adapt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psychological resilience among special education teachers: Based on a survey in special education schools in S city. *Chinese Special Education*, 201(03), 21-27
- Lei, S. P. (2022). The important mission of vocational education reform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Chinese-style education.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43(34), 1.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ohamed, M., Rashid, R. A., & Alqaryouti, M. H. (2022). Conceptualizing the complexity of reflective practice in educ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3, Article 1008234.
- Tschannen-Moran, M., & Hoy, A. W. (2001). Teacher efficacy: Capturing an elusive construct.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7(7), 783-805.
- 邓婷婷, 刁佳玺, 朱虹, 杨佳欣, 谢丹(2022). 师范生职业认同感研究综述. *心理月刊*, 2022(11), 237-240.
- 李娟(2014). 礼乐制度对西周乐舞文化发展的影响. *兰台世界*, 2014(15), 19-20.
- 宋运明, 李鹏(2020). 师范生学习投入对职业认同感的影响路径研究. *凯里学院学报*, 2022(03), 108-113.
- 王黎华(2020). 师范生心理韧性对学习投入的影响:职业认同的中介作用. *黑龙江生态工程职业学院学报*, 2020(02), 125-127.
- 张晔(2008). 教师的职业认同刍议. *教育理论与实践*, 2008(24), 33-34.
- 刘蕾(2019). TPACK 视阈下职前教师信息化教学能力培养研究. 硕士学位论文. 辽宁师范大学.
- 孙苏敏(2017). 师范生的教师职业认同初探. 硕士学位论文. 南京师范大学.
- 王凤娇(2024). 核心素养背景下新手教师教学反思能力提升策略研究. 硕士学位论文. 西北师范大学.

논문투고일 2025. 05. 07.

심사일 2025. 05. 21.

심사완료일 2025. 06. 03.

Influences on the Teaching Competency of Chinese Pre-Service Dance Teachers

–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Professional Identity,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Reflective Thinking –

Wang, Yaqi* · Park, Soo Young**

Doctoral Candida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rofessional identity, psychological resilience, reflective thinking ability, and teaching competency in Chinese pre-service dance teachers. Using data from 559 valid responses, the hypotheses were test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testing (Cronbach's α),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ith PASS 27 and AMOS 24. The findings indicate that all three variables – professional identity, resilience, and reflective thinking – significantly influence teaching competency. Furthermore, professional identity positively affects resilience and reflection reflective thinking, both of which serve as partial mediators in enhancing teaching ability.

Keywords: Pre-service dance teacher(무용 예비교사), Teaching competency(교수 역량), Professional identity(직업 정체성), Psychological resilience(회복탄력성), Reflective thinking(반성적 사고)